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인문사회계열 논술고사

경제학부/경영학부

문제 1

I. 문제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나]~[마]의 입장을 분류한 다음, [나]가 속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라.

[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본래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중략…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어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인간 사회를 둘러싸는 문제의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화합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서

[나] 아이히만은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로서, 그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희생된 유대인의 수는 약 600만 명에 이른다. 그는 독일 패망 후 아르헨티나에서 가족과 함께 가명을 써 가며 숨어 지내다가 1960년 5월 이스라엘 비밀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결국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아이히만이 재판정에 섰을 때, 세계 언론은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를 보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에게서 ‘괴물’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에 아연실색하였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친위대에도 그저 친구의 권유에 등 떠밀려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그를 추적하고 관찰한 한 철학자는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저 상부의 명령을 따랐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근면했고 무능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가 엄청난 범죄자가 된 것은 순전히 경찰의 부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그 철학자는 아이히만의 비극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에서 찾았고, 그런 삶이 악임을 지적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엄청난 비극을 가져 왔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과서

[다] 가족을 사랑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늙은이를 보살피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늙은이를 보살피는 것으로 넓혀 가고, 자기 어린이를 보살피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어린이를 보살피는 데에로 나간다면 천하를 다스리기가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이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다. 또한, 나라의 임금의 부모로서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며 백성은 자식으로서 임금을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서

[라] 집안 사람이 살림을 꾸려 나감에 있어서, (가혹하게 보이지만) 스스로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내도록 만들고 스스로 고생과 힘듦을 헤쳐 나가게 하면, 비록 전쟁의 어려움이나 기근의 재앙을 당하더라도 결국 따뜻하게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반드시 이런 집안의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옷과 음식으로 서로 동정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서로 은혜를 베풀면, 흉년이 들었을 때 부인을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고 자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반드시 이런 집안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가지고 도를 삼으면 처음에는 고생이 되지만 오래오래 이롭고, 인자함을 가지고 도를 삼으면 잠시는 즐겁지만 뒤에는 곤궁해진다. 성인은 그 경중(輕重)을 저울질하여 커다란 이득을 취한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 서로 참아내는 것을 취하고, 인자한 사람으로 서로 연민을 가지는 것을 버린다.

- 한비, □환비자□

[마] 이 방법은 만약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스스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지 말고 이를 피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좀 더 명랑하고 협조적인 10대 자녀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보다 이해심이 많고 공감적이며 일관성 있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더 큰 자율권을 가지려면 자신이 먼저 더욱 책임 있게 일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재능과 같은 2차적인 강점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적 성품과 같은 1차적인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승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승리'보다 앞선다. 따라서 남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에 앞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접근법은 내적 성품보다 외적 성격을 앞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본다. 즉 자신을 개선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II.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문제1은 개인적 선과 사회적 선 혹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문제 2

I. 문제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마]의 시사점을 설명하고, [라]에 근거하여 [다]를 평가한 후, [사]의 라스티냐크에게 상위 1%의 유산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경우 그의 결정이 [바]에 제시된 19세기 초와 20세기 초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설명하라.

[가]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 유무와 정도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에 따른 사회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어느 정도의 사회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거나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내고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회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나] 프랑스 혁명(1789년)이 발생하기 전 프랑스의 구체제는 출생에 따른 불평등한 신분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프랑스 인구 중 2%도 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이 제 1, 2신분으로서 특권을 누렸고, 인구 대다수를 차지한 나머지 제 3신분이 국가의 모든 부담을 떠맡았다.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변화 중 많은 부분은 나폴레옹 집권 시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즉 봉건 부과금 폐지, 독립 자영농 창출, 내부 관세 징수소 철폐, 단일한 국가 행정부 창설과 같은 혁명적 조치들이 나폴레옹 시기에도 계속 수행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목표도 왕조나 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1804년에 제정된 나폴레옹 법전은 법 앞에서의 모든 국민의 평등, 취업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 봉건제와 봉건적 특권의 폐지, 사유재산의 존중, 배심원에 의한 재판과 프랑스 전국 민법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개혁적 성과 때문에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북부와 독일 남부 등지에서 전쟁을 벌이던 나폴레옹 군대는 자신들의 전쟁에 동조하는 부르주아와 민중들을 만날 수 있었다.

-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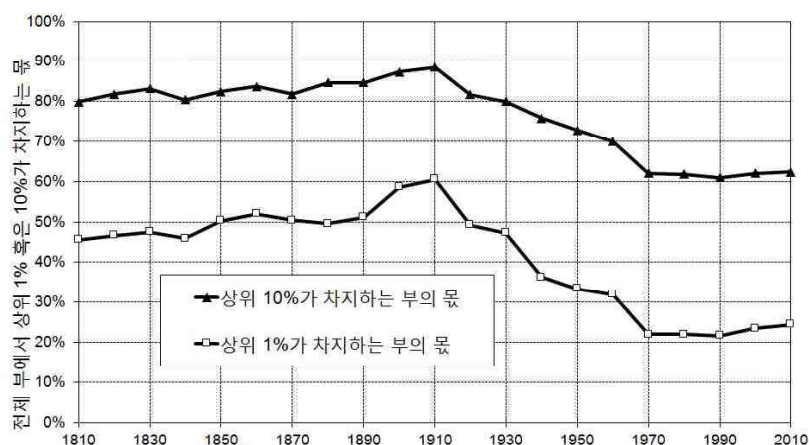
[다] 쿠즈네츠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더 높은 발전 단계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정책 선택이나 국가 사이의 다른 차이와 무관하게 결국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략… 쿠즈네츠가 묘사하는 특수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가난한 농업 부문에서 부유한 산업 부문으로 옮겨간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그 산업부문의 부에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평등이 증가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불평등은 감소한다. 이 같은 양식의 작동 원리는 일반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는 산업 부문 간에 이동하거나 저임금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 사이를 오갈 수도 있다. …중략… “성장은 모든 배를 뜨게 하는 밀물이다.” 1956년 로버트 솔로가 경제의 ‘균형성장 경로’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분석한 데서도 비슷한 낙관론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경로는 생산, 소득, 이윤, 임금, 자본, 자산가격을 비롯한 모든 변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성장의 궤적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회 집단이 성장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며 정상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쿠즈네츠의 견해는 불평등의 악순환에 관한 리카도와 마르크스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며, 19세기의 종말론적인 예언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라] 타모치우스는 그곳의 상황을 설명해 나갔다. 예를 들자면 더럼 공장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려는 사람이며, 그 밑으로 군대식 서열에 따라 지배인과 감독관, 십장이 있는데 각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최대한의 돈을 움아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서열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경쟁했으며 개인별로 평가했다. 어쩌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성과라도 내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공장은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시기와 증오로 들끓는 가마솥이었다. …중략… 유르기스가 그곳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이었다면 모든 역겨운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며 그들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유르기스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승진하고 숙련공이 될 작정이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패킹타운에선 일을 잘해서 승진하는 경우라곤 없었다. 승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악당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감독의 명으로 유르기스의 아버지를 만난 녀석은 아마 승진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먹고 제 일을 해낸 사람은 폐인이 될 때까지 부러먹히기만 하다가 시궁창에 던져질 것이 틀림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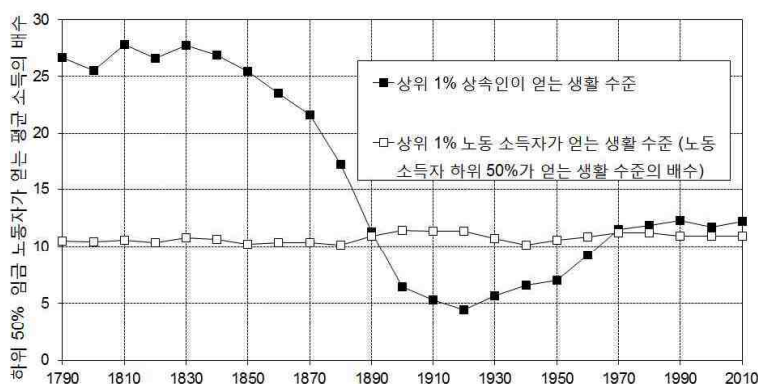
- 엽튼 싱클레어, 『정글』

[마] 프랑스에서의 부의 불평등, 1810~2010.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 프랑스 상위 1% 상속인의 생활 수준과 상위 1% 노동 소득자의 생활 수준, 1790~2010.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사] (* 다음은 보트랭이 법학을 공부하러 파리에 온 가난한 시골 청년 라스티냐크에게 그의 장래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이다.)

고결한 자네는 개라도 미쳐버릴 권태와 궁핍을 겪은 다음 어떤 괴상한 녀석의 대리역, 즉 검사보가 되겠지. 동네 한 모퉁이에 근무하며, 마치 푸줏간 개에게 수프를 던져주는 것처럼, 정부는 자네에게 천 프랑을 던져줄 걸세. 도둑을 쫓아가며 짚어대겠지. 부자를 위해서 변호하고 착한 사람들을 단두대에 보낼 거야. …중략… 서른 살쯤 되고서도 아직 법복을 안 벗는다면 자네는 연봉 천이백 프랑의 법관이 될 걸세. 마흔 살쯤 되면 자네는 육천 프랑의 지참금을 가진 어떤 방앗간집 딸과 결혼하겠지. 제기랄. 후견인을 찾아보게. 그렇게 되면 자네는 나이 서른에 연봉 삼천 프랑의 초심재판소 검사가 될 걸세. 그리고 시장 딸과 결혼할 테지. 만일 자네가 정치적으로 비열한 짓을 좀 하기만 하면 마흔 살쯤에 검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지. …중략… 나는 기꺼이 프랑스에는 검사장 자리가 스무 군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네. 자네는 이만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지. 이들 가운데에서 한 계급을 승진하기 위해서 가족을 팔아버릴 만한 사기꾼들도 있다는 사실을 자네에게 영광스럽게 알려주는 바일세. 이 직업이 싫다면 다른 것을 찾아보세. 라스티냐크 남작님 나리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실까? 오! 멋있겠지. 십 년 동안 괴로움을 겪으며 한 달에 천 프랑을 쓰고 도서실과 사무실을 차려야 하겠지. 사교계에 드나들며 사건을 맡기 위해서 소송 대리인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어야만 하지. 게다가 허로 법정을 청소해야 하는 것일세. 자네가 이 직업에서 성공한다면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네. 그러나 쉰 살이 되어 파리에서 연수(年收) 오만 프랑 이상 버는 변호사 다섯 명만 찾아보게. 어렵없는 소리지! 이런 일 때문에 영혼을 망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해적이 되겠네. 어디에서 돈을 수중에 넣는단 말인가? 어쨌든 유쾌한 일이 못 되네. 여자의 지참금으로 한밀천 잡을 수는 있겠지. 그런 결혼을 하겠는가? …중략… 만일 내가 자네에게 백만 프랑의 지참금을 가진 아가씨를 소개해 주면 어떤가?

- 오노레 드 발자크, □교리오 영감□

II.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사회 현상 중 하나인 부의 불평등 현상과 사회 이동을 통계자료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 ②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이동이라는 관점, ③ 문학 소설에 나타난 사회,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채점기준

첫째,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마]의 통계 자료의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제시문 [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발전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제시문 [다]를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제시문 [사]의 소설 속 주인공의 고민을 [바]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그 시대의 현실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가?